

시 정 질 문 서

【류재구 의원】

1. 도로보수 전담반을 운영 할 용의는?

도로의 포장·보도공사 중 시공 잘못이나 사용 부주의 등 망가진 도로 때문에 차량통행이나 도보시 사고의 위험 등 불편한 점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음.

이런 불량상태의 대부분이 작은 손질로 사용에 지장을 없앨 수 있는 결손으로 지금까지는 전체보수 시점까지 기다리거나 불편을 수없이 호소해야만 보수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음.

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수장비를 보유한 상시 수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도시미관을 정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?

2. 구도시 보도에 설치된 전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지중화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 사업의 추진용의와 그 시기는?

구도심권 대부분의 보도가 좁고 심지어는 1M를 넘지 못하는 등 대부분 협소한 보도에 전신주 등 지상돌출물이 보행자의 통행에 매우 불편한 상황임.

경인국도와 원미로 등의 지중화 사업은 통행에 불편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미관을 해소하는 사업 우선순위가 뒤바뀐 점이 있다고 할 것임.

따라서 구도심권의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도시미관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기 위해 시급히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언제 시행할 수 있는지?

3.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설치된 주차장이 시장 이용고객과 재래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?

우리 시는 상동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인접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장 상인이나 이용객들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음으로써 시장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.

따라서 설치 취지에 맞게 시장 이용고객에게 할인, 무료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?